

# 수월봉에 숨겨진 비밀 확인한 소중한 시간



지난 26일 열린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에서 탐방객들이 자구내포구-장군바위-차귀도 등대로 이어지는 차귀도 코스를 탐방하며 차귀도의 지질과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8일 제주도 환경면 고산리 해안에서 열린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의 마지막 전문가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탐방객들이 수월봉의 지층의 특징과 수월봉 일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김완병 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강희민기자

## 바람 부는 무인도의 풍광에 흠뻑 빠지다

### 장군바위~차귀도 등대로 이어진 차귀도 코스 추가 차귀도 역사·지질 한눈에... “자연의 소중함 일깨워”

차귀도는 제주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이다. 제주도 환경면 고산리 자구내 포구에서 약 2km 떨어져 있고 배로 10분 정도 소요된다. 차귀도 주변 해역은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25일 개막한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에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여주고자 차귀도 C코스가 추가됐다.

일 제주도 환경면 고산리 일대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새롭게 추가된 차귀도 코스로 향하는 유람선은 탐방객들로 만원을 이뤘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뚫고 차귀도에 도착하자 멀리 장군바위가 탐방객들을 맞이했다. 죽도라고 불려왔던 섬답게 대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탐방로를 따라 10여분 걸자 고산리 주민들이 손수 만든 무인도대가 나타났다. 차귀도 등대는 1957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자동적으로 붉은 밝히고 있다. 마지막 코스인 차귀도 정상에 다다르자 고산리 일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수월봉 주변 해안절벽을 따라 다양한 화산재 지층들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어린 아들·딸과 함께 차귀도를 찾았다는 제주도민 김선혜(39)씨는 “차귀도 코스가 새롭게 추가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에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차귀도 자연경관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바람이 세게 불어 조금 힘들었지만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쉽고 재미있는 수월봉 지질 이야기”

### 지질공원해설사협회 탐방

“이 둥그런 빵을 한쪽만 조금씩 먹어 보세요. 한쪽 단면이 이 앞에 보이는 단면처럼 비슷하죠? 이렇게 바닷물에 의해 조금씩 침식된 곳이 바로 이곳 수월봉이에요.”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 이틀째인 26일 고산중학교 학생 30여명이 수월봉을 찾았다. 고산중 학생들은 여러 무리로 나눠 지질공원해설사협회 소속 해설사들을 따라 수월봉 영양길 A코스를

탐방했다. >>사진 이날 한 무리의 해설을 맡은 고춘자 해설사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수월봉의 다양한 화산 퇴적구조 등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고 해설사는 수월봉 절벽에 이르는 ‘옛날 수월이와 녹고리는 남매가 병환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구하다가 누이 수월이 절벽을 오르다 떨어져 죽고, 누이를 잃은 슬픔에 동생 녹고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 죽었다고 전해진다’며 “그 후로 이 절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녹고의



눈물’이라 부르고 이 언덕을 ‘녹고물 오름’이라고 불려졌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수월봉과 녹고물 오름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신기하다”며 “수월봉이 왜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 역할을 하는지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 “제주도의 자연은 ‘지붕 없는 박물관’”

### 김완병 박사와 함께하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 탐방객들 수월봉 서식 동식물 강의에 ‘매료’

2019 제주도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행사의 마지막은 전문가 탐방이 장식했다. 탐방객들은 “평소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수월봉의 속살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제주도 환경면 고산리 해안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김완병 박사가 진행하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해녀의 집 인근 탐방로에서 출발해 수월봉 검은모래해변과 영알과 화산재 지층 일대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짜여진 탐방에서 참가자들은 김 박사의 강의에 눈과 귀를 곤두세

우며 웅장한 수월봉의 지층과 눈부신 바다의 풍광을 담으로 만끽했다. 김 박사는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수월봉 지층의 특징과 수월봉 일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수월봉 지층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지층 사이에 갯강구들이 서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숨비기라고 합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올라와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를 숨비소리라고 하잖아요. 과거 해녀들은 물질로 머리가 아플 때면 머리 말에 이 숨비기를 놓아줬는데 숨비기가

두통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지층을 만져보세요. 바위인 것 같지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죠. 사실은 진흙입니다.” 김 박사는 이처럼 신기한 제주 자연을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표현했다. 김 박사의 설명에 참가자들은 ‘아’ 하는 감탄사와 함께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이 끝날 때마다 카메라로 수월봉의 특징을 담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두 자녀, 부인과 함께 전문가 탐방에 참여한 강승철(45·제주시 외도동)씨는 “과거 수학여행 때 수월봉에 온적이 있는데 그 때는 그저 풍광만 감상했었다”면서 “오늘 아이들과 함께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며 수월봉에 대한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수월봉 만끽하고 상품도 받으세요”

### 행사기간 이색 이벤트 눈길

“2019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의 또 다른 묘미는 주최 측이 준비한 이색 이벤트였다.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 풍성한 상품을 챙길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돼 탐방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제주세계지질공원 수월봉 트레일’

페이스북(facebook)에서는 행사가 진행되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수월봉을 방문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월봉의 아름다운 풍경 등을 담은 ‘인증샷’을 올리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 기간 페이스북에 인증샷을 올린 탐방객 중 5명 골라 추후 현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인증샷을 올릴 땐 #수월봉 #수월봉 트레일 #제주세계지질공원 이란 태그를 달아야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의 지문을 찾아서’라는 이름의 인증샷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트레일 코스에 있는 지질 특성이 ‘탐낭’ ‘사총리’ ‘도대블’ ‘봉수대’ ‘차귀도 등대’ 중 한 곳에서 사진을 찍은 뒤 인증샷을 행사 본부석 관계자에게 보여준 탐방객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졌다. 이상민기자

제2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

푸른바다 은빛물결 어업인의 숨결

서귀포수협 사람들

2019. 5. 3(금) ~ 5. 5(일)

서귀포항 및 자구리 공원 일원

**축제기간 중 은갈치 최대 10%~50%할인**

일부품목 / 수량한정

주문 전화 064-732-3579 (직매장)  
064-733-3506~7 (유통과)

인터넷 주문 www.seogwipo-suhyup.co.kr  
※ 검색창에 서귀포수협 검색

**주요 프로그램**

은갈치주제관(전시, 시식, 홍보, 판매), 이색경매, 어촌계대항전, 은갈치 가요제, 인기연예인공연, 각종 체험프로그램등

※검색창에 서귀포은갈치축제를 검색해 주세요

NAVER 서귀포은갈치축제 검색

주최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주관 서귀포은갈치축제위원회

후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수협중앙회

문의전화 064)733-3501